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지도력의 본질



복 거 일
소설가·사회평론가

어떤 집단의 지도자가 지닌 지도력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이 점은 국가와 같은 공식적 조직의 경우에 뚜렷하다. 그러나 지도력은 현실 속에서 발휘되므로, 상황에 따라 지도력의 성격이 달라진다. 예컨대, 산행에서 병자가 나오면, 의학 지식을 가장 많이 갖춘 사람이 실질적 지도력을 발휘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정치 지도자도 장군들의 의견을 존중하게 된다. 현실에선 이런 기술적 지도력(technical leadership)이 큰 몫을 한다.

물론 최종적 결정은 정치 지도자가 내린다. 산행에서 생긴 병자의 구호 방식이나 산행의 지속 여부와 같은 결정들은 최

종적으로 산행 대장이 내린다. 전쟁에선 물론 정치 지도자가 최종적 결정들을 내리고 책임을 진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지도자의 선출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다.

현 정권이 원자력 발전에서 발을 빼는 정책을 펴면서 발생한 문제들도 정치 지도자의 지도력과 관련되었다. 원자력 발전은 아주 어려운 주제다. 게다가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 경제성, 기술 발전의 전망과 같은 여러 분야의 문제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당연히,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은 전문가들만이 판단할 수 있어서, 기술적 지도력이 유난히 중요해진다.

현 정권은 이처럼 깊은 전문적 지식들이 필요한 원자력 발전에 관한 정책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전문적 지식들이 필요한 일을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적이다. 그나마 국민투표를 통해 전체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도 아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정부가 선정해서 기구를 만든 뒤 그들의 결정을 대통령이 무조건 따르겠다는 얘기가. 그들이 무슨 권위와 권한으로 그런 복잡하고 중요한 결

정을 내린다는 것인가?

당연히, 공론화를 통한 정책 결정은 지도력의 본질에 어긋난다. 전문가들이 포함되지 않은 기구에서 결정하니, 정치 지도자가 기술적 지도력을 받아들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기구의 결정을 대통령이 무조건 따르겠다는, 정치 지도자가 자기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공론화 절차는 이처럼 겉으로 문제적이다.

지금 나온 상황은 현 정권의 평지풍파다. 이미 오래 전에 세워졌고 여러 정권들을 거치면서 다들 어진 산업 정책을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바꾸겠다고 나선 것이다. 시민들이 원자력 발전의 실상을 알아가면서, 현 정권의 태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나라의 앞날을 어렵게 하고 현 정권에도 곤혹스러운 상황이 나오게 된 데엔 물론 여러 요인들이 작용했다. 눈에 덜 띄이는 요인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물레에 전문가들이 적다는 사정이다. 대신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에 오래 종사한 사람들이 유난히 많다. 다른 분야들에서도 평지풍파가 많고 민주주의적 접근이 흔해서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평

가가 나오는 데엔 이것이 한몫 단단히 하는 듯하다.

정치 지도자 물레에 전문가들이 부족한 현상은 두 경우에 나온다. 하나는 필요한 전문 지식을 잘못 짚은 경우다. 예컨대, 수질 악화는 사람들이 오염 방지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아서 나온다. 올바른 처방은 필요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정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지식은 본질적으로 경제학 지식이다. 한강 수질이 나빠졌다는 격정이 일자, 대통령이 연구소의 화학자와 면담한 적이 오래 전에 실제로 있었다.

또 하나는 사이버 전문가들이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경우다. 한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사실은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가임을 보증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가처럼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오르테가 이 가세트와 하이에크가 오래 전에 경고한 이 위험은 현 정권에서 유난히 큰 것처럼 보인다. 현 정권의 원자력 발전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전문가’가 원래 환경 분야 전문가라는 얘기가 돈다. 전문가의 부족에 대해 현 정권은 진지하게 살펴야 한다.

종교칼럼

꽃 할머니께 보내는 8월의 편지



장 현 권
사정교회 담임목사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김재림 할머니, 고 갑학순 할머니, 최근에 돌아가신 김근자 할머니 성함을 조용히 불러 보는 아침입니다. 올해는 무척 더운 날씨였습니다. 이제 입추를 지나 처서가 눈앞에 있지요. 그래서인지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광복 72주년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조선 여자근로정신대가 있지요. 바로 양금덕 할머니입니다. 당시 일본인 교사와 교장의 사탕 벌림에 일본으로 강제동원 되었지요.

1944년 5월경 폐색이 짙어진 일본은 전시 노동력을 위해서 어린 초등학생 또래 13세 14세 소녀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

다. 목포, 나주, 광주, 순천, 여수 등에서 동원된 소녀들은 여수에서 연락선을 타고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셨는지요. 이어서 대표적 공업도시인 나고야의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배치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일제가 폐망할 때까지 굶주림과 혹독한 감시속에서 하루 8~10시간 동안 강제노동에 시달렸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 하셨지요.

그때 할머니와 함께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된 사람이 광주·전남에서 150여 명이랍니다. 찬 겨울에 장갑하나 없이 맨손으로 철판을 만지고 찬물에 부품을 씻느라 손등이 통통 붓고 갈라져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울컥합니다. 특히 힘든 것은 배고픔이라고 하셨지요. 이런 세월 가운데 약속했던 임금 한푼도 받지 못하고 1945년 해방이 됐습니다. 돌아와서는 일본 다녀 온 것이 위안부인줄 알고 가정이 파탄 났다지요. 참 어처구니없는 일들입니다.

지난한 세월을 보내고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요. 패소 이후 광주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

와 함께하는 시민모임(2009년)이 결성돼 할머니와 손을 잡게 되었지요. 할머니를 그때 뵈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군함도도 함께 관람하면서 씩씩하게 응원하시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사시는 모습이 목사인 저는 마치 어머니처럼 포근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김재림 할머니입니다. 지난 8월 11일 법원은 미쓰비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미쓰비시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배상명령을 내렸지요. 그때 김 할머니는 ‘오래 살 다보니 이런 일도 있다’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탐과 눈물을 닦으면서 한 손에 지팡이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저의 손을 붙잡고 벌어진 길을 나올 때 할머니의 그동안 고통과 아픔을 느꼈지요. 할머니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나눔의 집에 계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소수된 교단 총회 인권위원회에서 방명판 제도 있지요. 유엔과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성 노예’ ‘성 폭력 피해자’라는 표현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

지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켜온 25년간의 그 아름답고 경이로운 용기,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시위 ‘수요집회’에 함께하지 못해 늘 죄송하기만 합니다.

김원옥 할머니께서 유럽의회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이끌어낸 연설을 기억합니다. 그때 할머니는 “저는 해방되고서 아주 긴 세월을 제 과거가 부끄러워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피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용기를 내어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시위에서 지금 한창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게는 큰 숙제 하나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올바르게 밝혀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주에서도 매일 첫째 수요일 ‘나비 모임’을 통해서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함께 합니다. 우리 시대의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오신 할머니들, 하늘나라에서도 안식하지 못하시는 할머니들의 평화의 날갯짓입니다. 반드시 일본 위안부 합의 원천 무효를 이끌어내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할머니들의 건강을 위하여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기 고

‘택시운전사’ 옥에 티



나 정 호
보해 홍보팀장

영화 ‘택시운전사’가 열일 화제다. 이 영화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외부인의 시선으로 다뤄 개봉 전부터 관심을 끌었다. 실화를 바탕으로 송강호가 주연을 맡아 언론의 주목과 기대도 컸다. 문재인 대통령과 힌츠페터 기자의 부인도 직접 관람하며 성원을 보냈다. 단시일 내에 900만명 돌파 소식도 들린다.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영화를 관람했다. 절절한 중학교 때 기억을 떠올리며 시대의 아픔을 함께 했다. 잠으로 고마운 영화이자 시대의 아픔을 전국화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 같아 눈물 나오도록 감사를 드리고 싶은 영화다.

하지만 직업은 못 숙인다고 주류회사 직원 입장에서 옥에 티도 보인다. 함께했던 광주시민으로서 본의 아닌 왜곡된 사실도 발견된다. 영화속 ‘술’에 관련된 소품에 대한 얘기가.

관심 없는 이들에게는 작은 사실이고, 어찌 보면 극의 전체적 흐름에서는 아무 것도 아닐 수 있다. 1980년 광주·순천지역에서 마시던 소주는 보혜소주였다. 이것은 팩트다.

그런데 영화 속에는 타사 제품이 등장한다. 타사의 상표를 드러내며 영화의 물입(?)을 방해한다. 그 당시 보혜소주는 광주·전남에서 점유율이 90%가 넘는 지역을 대표하는 소주였다.

지역민의 사랑 속에 동네 구석구석에서 흔하게 마시던 시대의 아이콘이었다. 전국적인 소주 출고량도 10%가 넘었다. 민감한 소재와 사소한 것까지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광주 5·18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영화로 표현하는 데 있어 아쉬운 장면이었다.

또한 소주 관련 소품도 사실과 다른 장면이 자주 보인다. 플라스틱 소주상자와 부착물이 그 예이다. 플라스틱 소주상자는 작업능률과 파손방지 등을 이유로 1979년 나무 상자에서 40병입 플라스틱 상자로 바뀌었다. 하지만 영화 속 플라스틱 소주상자는 최근에 사용하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었다.

피지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해당 소주 회사에 제품에 관한 문의나 사전 조율이 있었어야 했다. 이것은 술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차원의 식용료가 아니라, 일상에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지역의 정서까지 대변하는 문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아한 대우이고 사회화 사실의 왜곡이다.

아시다시피 1980년 5·18 이후로 호남은 한과 차별의 소용돌이 속에 지역적 암흑기를 맞았다. 정치적 핍박과 경제적 낙후 속에 문화의 정체, 사회적 차별을 겪어

야했다. 그 설움과 분노를 해대 타이거즈 야구를 보고 보혜소주를 마시며 목포의 눈물을 열창했었던 과거의 기억이 아직도 선연하다. 왜곡된 지역의 편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광주를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라고들 얘기한다. 그 민주화의 성지에서 보혜소주가 수 많은 젊은 이들과 민주시민들과 시대적 아픔을 함께하며 고단한 삶을 위로했던, 그 시대의 산 증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공감해 주었으면 한다. 공감한다면 앞으로도 그러한 시대적 공감은 계속 되었으면 한다.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가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준 건 작은 에피소드에 감정이입하고, 그 시절 사용하던 소품들에 대한 리얼한 공감이 큰 원인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5·18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영화화 하는데 있어 영화 속의 소품들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실상 표현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社 說

다시 드러난 부실 친환경 인증 구조적 개선을

살충제를 남용한 산란계 농장이 전남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추가로 확인되면서 ‘살충제 계란’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믿고 사 먹었던 친환경 인증 제품도 사실상 살충제 법박인 것으로 조사돼 정부의 친환경 인증 제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7일 오전까지 전수검사 대상 산란계 농장 1239곳 중 876곳에 대한 검사가 완료됐으며 이 가운데 67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전남에서도 피프로닐이나 비펜트린이 검출된 계란을 생산한 양계농가는 모두 7곳으로 늘었다. 조사가 완료되면 살충제 검출 농가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친환경 농가의 경우 683곳 중 살충제나 농약이 검출된 농가가 62곳나 됐다. 10곳 중 1곳은 ‘무늬만 친환경’이었던 셈이다. 일반 계란에 비해 배 가까이 비싼 가격에 팔리는 친환경 인증 농가 계란의 경우 살충제 성분이

조금도 나와선 안 된다. 이에 따라 부실한 친환경 인증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 고 있다. 친환경 인증 업무는 애초 국립농산물관리관리원과 민간 인증기관에서 담당하다가 올해 초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업체로 모두 이관됐다.

친환경 인증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부실 인증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농식품부에 적발된 부실 인증 사례만 2734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간에 위탁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친환경 인증 권한을 정부가 다시 넘겨받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이 전국의 절반에 이르는 ‘친환경농업 1번지’다.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소비자 불신이 전체 친환경 농산물로 확산할 경우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친환경의 생명은 ‘소비자의 믿음’인 만큼 인증 관리 시스템을 더욱 엄격히 강화해야 할 것이다.

‘5·18 특별법’ 국회 통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5·18은 지난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민주화운동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북한군 개입에 의한 폭동이라는 허위 사실 유포와 가해자들의 조준 사격 부인 등 5·18에 대한 왜곡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금지과 지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등을 계기로 5·18 진상규명의 호기를 맞으면서 5·18 진상규명 및 왜곡 근절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와 지역 원로 등으로 구성된 ‘5·18민주화운동진실규명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전두환 회고록 차단과 있는 아이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게는 큰 숙제 하나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올바르게 밝혀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주에서도 매일 첫째 수요일 ‘나비 모임’을 통해서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함께 합니다. 우리 시대의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오신 할머니들, 하늘나라에서도 안식하지 못하시는 할머니들의 평화의 날갯짓입니다. 반드시 일본 위안부 합의 원천 무효를 이끌어내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할머니들의 건강을 위하여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전두환 회고록을 회수하고, 범인 결정 후에도 거러되는 회고록의 유통 실태를 파악해 조치하는 등 5·18 왜곡행위 근절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윤장현 광주시장도 “5·18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해 왜곡 행위가 사라지도록 국회는 5·18특별법 통과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등을 계기로 5·18 진상규명의 호기를 맞으면서 5·18 진상규명 및 왜곡 근절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와 지역 원로 등으로 구성된 ‘5·18민주화운동진실규명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전두환 회고록 차단과 있는 아이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게는 큰 숙제 하나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올바르게 밝혀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주에서도 매일 첫째 수요일 ‘나비 모임’을 통해서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함께 합니다. 우리 시대의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오신 할머니들, 하늘나라에서도 안식하지 못하시는 할머니들의 평화의 날갯짓입니다. 반드시 일본 위안부 합의 원천 무효를 이끌어내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할머니들의 건강을 위하여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無 等 鼓

레이첼 카슨이 1962년 ‘침묵의 봄’(Silent Spring)을 출간했을 때 미국 화학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농약이 ‘천기의 보도’로 여겨져 ‘대박’을 치고 있었는데 “살충제의 오용으로 우리 자신이 서서히 독극물에 중독되고 있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화학업계가 25만 달러를 들여 연구 업적을 깎아내리는 공작을 펼칠 정도였다. 해양생물학을 전공한 이력도 도마에 올랐다. “여성애다 뜻내기 비전공자가 뭘 알아”라는 비아냥이었다. ‘뉴욕 타임스’는 머리 기사에서 “올 여름 ‘침묵의 봄’이 상당한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썼다. 주류 언론의 기사로 미뤄 당시 사회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환경학 최고의 고전이 된 ‘침묵의 봄’은 그녀가 불과 56세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뜨는 바람에 유작이 됐다. 투병과정에서 집필에 매달린 것도 세상과 결별을 앞당기는 이유가 됐다.

그녀는 떠났지만 침묵의 봄은 미국 정부, 세계를 일깨웠다. 케네디 대통령이 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연방정부와 주 정부차원에서 농약 오염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입법부는 정부 차원의

유독물 살포를 금지했다. 그녀 덕분에 지구의 날(4월 22일)도 제정됐다.

레이첼 카슨이 우리를 일깨운 경구는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자연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가르침이다. 자연이 병들면 인간도 병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침묵의 봄’이 출간된 지 50여 년이 지났음에도 농약 문제는 여전히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유럽을 강타한 ‘살충제 계란 파문’이 대한민국까지 뒤흔들어 놓고 있다. 기술 진보에도 농약 문제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농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인간의 탐욕 때문이 아닐까 싶다. 수확·수익 증대가 최고의 가치가 된 세대에서 환경과 타인의 건강을 살필 겨를이 없었는 거다.

레이첼 카슨의 경고가 새삼 가슴에 다가온다. “세상은 비탄에 잠겼다. 그러나 이 땅에 새로운 생명 탄생을 가로막은 것은 사악한 마술도, 악독한 적의 공격도 아니었다. 사람들이 스스로 저지른 일이었다.”

/윤영기 사회부장 penfoot@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지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